

지상법석 - '참사람결사 대법회' 서용스님 법어

멸망의 종착역 향한 기차



▷ '참사람 결사법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서용스님의 법어에 귀 기울이고 있다.

가슴이 깊어 획 볼어 닳치는 바람에 나엽이 아무 저항없이 휩쓸려 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은 과학문명이라는 바람에 휩쓸려 가는 나엽입니다. 자기라는 주체성을 잃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불교이며 그 핵심이 바로 선법문에 있습니다. 영원하고 무량한 그래서 자유자재한 나의 참 모습을 자각하는 도리가 선의 가르침입니다.

현대 문명의 불합리와 그로인해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참사

그리고 천개의 눈이 단박에 열린다는 것은 말로는 하기 쉬운 것이지만 그 경지란 한 없이 깊은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신(神)도 불확하다'는 말을해 교단에서 쫓겨난 바 있습니다. 이 경지란 참으로 도달하지 아니하고 문자와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팔리고 이끌리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참선의 현묘한 경지에 이르면 시방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확절대오(廓徹大悟)해서서 천안이 단박에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로 모든 작용을 끊어서 만가지 기틀을 쉬어 없애는 겁니다.

'참사람결사' 세가지 서원

첫째 무상무주(無相無住)의 참 나를 깨달아 자비생활을 합니다.

둘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하여 세계인류가 평등하고 평화스럽게 사는 역사를 창조합니다.

셋째 자기와 인류와 생물과 우주가 영원의 유일생명체 이면서 각각 별개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서 집착함이 없이 진실하게 알고 바르게 행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세계를 건설합니다.

라 '동가인(東家人)이 사(死)에 서가인(西家人)이 조애(助哀)로다' 정(定)이 방애배(方禮拜)라 '장근보를(將勤補拙)이로다' 홀연대오(忽然大悟)하다 '여암득등(如踏得燈)하고 여빈득보(如貧得寶)라' '장착취착(將執擧執)이로다' '차도정상좌견개시마(且道定上座見開什麼)안대 편애배(便禮拜)오.

문장이 좀 길다고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새겨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상좌(定上座)는 임제스님의 수제자에 해당하는 산승입니다. 그가 임제 스승에게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 극근선사가 착어를 달아 설명한 것 '부분'입니다. 이 틀음에 극근선사가 착어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러 아득

“자기 참모습 보려는 의심 문명 굴레 벗어나는 지혜” “어두운데서 등불 만나고 가난 속 보배 얻음이다”

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 법회가 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 이점에서 (임제록)의 가르침을 몇구절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이 법문은 지식과도 상관없고 나아가 지위와도 상관없이 오직 지극한 신심을 내어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도리어 함께 죽고 함께 살 사람이 있어 현실의 공안을 처단하지 못할진데는 옛 사람의 법문을 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거정상좌문입제(擧定上座問入際)하되 여하시불법대의(如何是佛法大意)닛고 '다소 인도차명연(多少人到此茫然)이라' '유유저개재(猶有這箇在)라' '아랑당작시마(阿郎當作什麼)오' 제하선상금주(濟下稱味滴注)하여 여일장(與一掌)하고 편락개(便拂開)하니 '금일적패(今日捉敗)라' '노과심절(老婆心切)이라' '천하남승조불출(天下衲僧無不出)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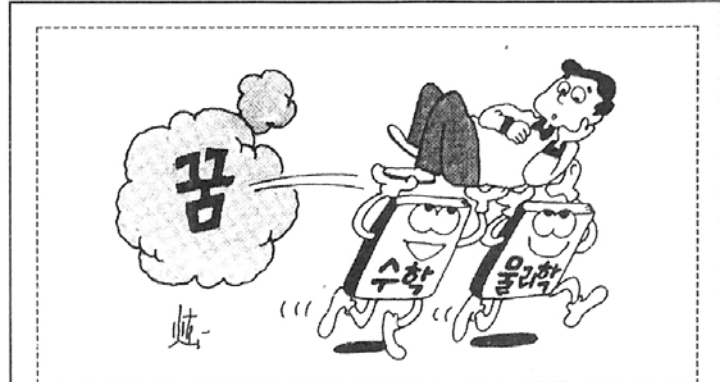
정저립(定佇立)이어는 '기락귀리(己落窟裏)라' '차과료야(差過了也)라' '미면실각비공(未先失却鼻孔)이로다' 방승(傍聲)이 운정상좌하불애배(云定上座何不禮拜)오 '냉지리(冷地裏)에 유인저파(有人捉破)라' '전득타력(全得力)이

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법대의가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서 아득한 것이 또한 선 수행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묻는 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착어를 이어 달았습니다. 불법대의를 묻는 것은 오히려 명칭한 일이라는 것이 다음의 착어입니다. 다시말해 정상좌가 스승에게 불법대의를 묻는 일은 필요도 없는 명칭한 일이라는 것인데 다음 구절이 극적입니다.

임제스님이 선상에서 내려와 정상좌의 맥살을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후려치고 밀쳐버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불법의 대의를 묻는 제자를 후려치고 밀쳐 버리는 이 행동은 사실 임제스님도 그의 스승에게 당했던 그대로의 행동입니다. 임제스님은 그의 스승 황백스님에게 무엇이 적절한 불법이냐고 물었다가 60방을 얻어맞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임제 자신이 얻어 맞았던 걸의를 제자에게 받았으니 그 역시 제자를 후려치고 밀쳐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착어를 어떻게 달았습니까. 오늘

을 이었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상좌가 크게 깨달음을 얻는 장면에 대해 극근 선사는 함참한데서 등불을 얻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두운 곳의 등불뿐이었으며 가난 속의 보배일 뿐이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 자성을 증득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기쁘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과학문명의 폐단이 인간의 정신을 갇아 먹는 이 시대에 어둠 속에서 등을 밝혀 드는 지혜를 얻기위해 우리는 한 순간도 게으르지 말고 수행정진 해야 합니다. 과학문명 그 자체는 나쁜것이 없으나 그것은 생명권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흠입니다. 그래서 활발발(活潑發)히 살아있는 절대 현재의 참사람이 되어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지인심(直指人心)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한 참사람의 세상을 위해 세가지 서원을 하여 실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 무지역무득 아무소독고'라고 설한 후 경전은 '보리살타 의반아바라밀다'고 심무가에 무가 애고 무유공포...'라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말한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94 김성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31

'공' 중에는 '지혜'라 할 것도 없고 '얻는다'는 것도 없으며 얻은바가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반야심경'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생각하는 바를 전한다는 뜻인데 정보가 전달되는 수단이 없이도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가 전달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혼하를 얘기한다. 주·객으로 나뉘어진 세계에서만 본다면 '이심전심'은 물리학의 기본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모든 정보는 반드시 매개체를 필요로 하고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도 없다. 그러나 주·객 즉 견성을 한사람에

“주·객으로 나누기 이전의 세계에서는 매개없이 빛보다 빠르게 이심전심”

개는 즉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몸을 깨어 모든 것이 하나임을 체득하니 지혜라 이름붙일 것도 없다. 저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저것인데 거기에 무엇을 따져 얻을 것이 있었는가? 저것과 내가 남일 때 따지고 얻을 것이 있는 것이 그대로 하나인데 무엇을 얻겠는가? 그저 꿈을 깨면 그만인 것이다. 그래서 꿈을 깬 보살은 반야에 의해 걸림이 없어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나 즉 대아(大我)인 것이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반야심경'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생각하는 바를 전한다는 뜻인데 정보가 전달되는 수단이 없이도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가 전달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혼하를 얘기한다. 주·객으로 나뉘어진 세계에서만 본다면 '이심전심'은 물리학의 기본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모든 정보는 반드시 매개체를 필요로 하고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도 없다. 그러나 주·객 즉 견성을 한사람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 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 기간 :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침치료, 기공등
- 연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수료증 수여
- 인원 : 10명 이내 선착순
- 출발일 : 1996년 12월22일 (일)
-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화 : 02)511-2026~8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 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회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 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오!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불교달력

“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타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화 : 02)269-9755
FAX : 02)268-2391